

# 國際的 目錄一致에로의 動向

洪 淳 英 譯

譯者 註: 이 기사는 1960年 3月號 ALA Bulletin에 실렸던 것으로 지금 한창 논의 되고 있는 국제목록통일에 관한 기사이므로 번역 해 본 것이다. 우리도 來年 九月에 Paris에서 열릴 國際的인 이 모임에 아마도 代表를 파견하게 될줄로 안다.

내가 英國에 있는 동안 London에서 모인 국제적 회합에 운서머로 참가할 機會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國際的 目錄會議를 目的으로 해서, 1959年7月19일부터 25日까지, 國際圖書館協會聯合會(International Federation Library of Associations) (앞으로 IFLA라 略稱)의 理事會에 依해 열렸다. 圖書館資料理事會(Council on Library Resources)의 許可로 모이게 된 이 豫備會議(The preliminary meeting)는 目錄原理의 均衡을 爲해 5年以上이나 애 쓴 IFLA의 研究部(Working Group)에 큰 성과를 주게 되었고 또한 基本的 目錄原理에 있어서 國際的 一致를 얻는데도 큰 發展을 보였다.

이 會는 열새나라 代表들이 참가한 제미었던 회의로 每日 두번씩 英國博物館協會(British Library Association)의 本部인 Chaucer House에서 모였다. 會議의 代表들은 IFLA Working Group의 會員들이었으며, 이들은 國際的 會議를 組織할 책임이 있었다. 이 豫備會議에서는 열 여덟명이 모였었는데 이들은 모두 分類 專門家들이었다. 또 약 열 두명 가량의 운서머들이 참가함으로써 참가국의 總數는 늘게 되었다. 目錄法改正委員會(Catalog Code

Revision Committe)의 議長인 Wyllis Wright와 改正된 目錄法의 편집자인 Seymour Lubetzky가 美國의 正式代表로 參加 했었다. 쓰런 대표인 Lenin State Library의 Mme. V. Vasilevskaya가 身病으로 참가하지 못했던 것은 참 유감된 일이다.

미리 배부된 연구자료로서 英國에서 취급되었던 論議의 大部分을 기초잡을 수 있었다. 會議의 目的은 이 列擧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國際的 一致性이 缺如된 目錄記入의 형태와 선택에 關한 原理들 만을 따로 추려 놓으려는데 있었다. 이 추려진 問題들이 앞으로 있을 國際會合에 提案 될것이며, 이 會合에서 根本原理上的 合意를 보아야만 할 것이다.

目錄理論에서 생겨나는 差異點에 關해 상세히 論해 보고 싶어하던 分類專門家들의 이 모임의 成果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目錄規則에 있어 國際的 一致를 얻으려는 계획은 더러해 동안 있어왔으나 그 노력의 때로는 열정적이었고, 때로는 기운을 잃어, 오랫동안은 거의 잊어버려진 狀態였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支持해 왔다. 우리도 드디어는 이 問題를 얘기 하게 되

있고, 또全世界에 있어서 이目錄規則의國際的統一性을重視하지 않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한편 우리의 이러한目標가實際性이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은 헛된努力이라고 말하는 이도 아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目的을達成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해서目錄法을改正하는 것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확신하고있다.

### 傳統的 差異點의 調和

지난 5年間은 어쨌든 여러가지 재료로부터 새로운 자극을 받아 왔다. 이것은大部分이 IFAL Working Group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이 group은國際的 基盤 위에目錄의 原理를 一致시킬 目的으로 1954년에 特別히 分類專門家들로 構成된 것이다. 特別히 Anglo-Saxon과 獨逸의 目錄傳統사이에 생기는 主要 差異點을 조화시키려는 것으로 그들은 團體名 標目을 使用하고 個人著書가 아닌것은 書名主記入(獨逸語에 있어서는 "Anonyma"로)을 하고 있다. 1956년에 Chicago 大學의 圖書館學大學院에서 열린 年次會에 "萬國目錄法"이라는 題目으로 ("좀더 나은 目錄法으로"라는 主題를 위해 기고된것임) IFLA Working Group의 行政幹事인 Hugh Chaplin이 쓴 보고서 가운데 그는 말하기를 이 Working group을 가지므로 어느정도 進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고 또한 "適合한 團體에 의한 不斷한 노력으로 더 많은 進展을 얻을 수 있다. 많은 나라가 지금의 法을 改正하고 또 改正할 目的으로 會合을 조직하며, 나아 가서는 그들이 目的하는바 國際的 一致를 위해 어떠한 모

成功은 바랄수 없다"고 했다. IFLA Working Group이 생긴 以後 이것은 계속 애기 되어 왔다. 圖書館資料理事會는 이 運動을 상당히 지지 해왔다. 專門的인 문제들을 爲한 積축으로 생기게 된 目錄法改正委員會(The Catalog Code Revision Committee)로 全世界에 걸쳐 어느정도 分類上에 발전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1957年 Andrew Osborn이 A. L. A.의 代表로 參席한 Lübeck에서 열린 會合(獨逸 圖書館會議—German Library Conference에 依해 열림)의 要請에 依한 것이었다. 1957年11月の ALA Bulletin에 제제된 그의 보고서에서 그는 "國際的인 合意의 目標은 실제적인 理想主義의 한도밖에까지는 가지 않는다. 記入의 선택問題, 도서 관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의 情報와 文化의 國際的 相互 交流等 廣範圍한 合意에 달성함으로써 큰 利益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의 이러한 陳述에 對하여 "보편적이면서도 어려운 目錄上의 問題들을 論하는데 있어서 協力하고, IFLA를 통해 우리의 目的을 달성키 위해 일한다"고 하는 반응을 보게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Anglo-America와 독일의 전통에서 그러 했듯이 團體標目과 anonyma를 취급하는데 관련되어 생겨나는 目錄理論에 있어서 그 原理가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調節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目的을 達成하는 길에서 커다란 장애물들을 넘어 왔다. 재미있는 것은 Mr. Osborn이 Lübeck에서 國際的目錄一致를 운동하고 있는 한편, 쾰른에서 온 同僚한 사람이 Leipzig에서 西獨人들에게 같은 성질의

Mme. Kadankowa는 獨逸의 도서관인들에게 Prussian Instructions(獨逸目錄法)을 모방할것과 文法的 語順과 "anonyma"에 대한 全 概念을 以上 더 쓰지 않을 것을 열렬히 권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에 자극을 받아 알파벳順 目錄에 관련되는 問題들을 연구하는 委員會(a Committee for the study of Problems Related to the Alphabetical Catalog)가 모여야만 한다는 것을 西獨의 文教部에 建議에 왔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문교부에서는 도서관인의 모임을 하나 조직했다.

最近에 1959년의 「도서관中央紙」(Zentral blatt für Bibliothekswesen)에 "獨逸目錄法の 60週年 回顧"라는 제목으로 쓰인 記事 가운데 H. Roloff는 독일의 도서관은 獨逸目錄法을 개정하거나 또는 아주 버려야 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언했으며 또한 目錄規則에 있어서 더 나은 國際的 基準의 必要性을 인정하고 있다. 獨逸目錄法에 匿名의 저서에 대해 기계적으로 書名을 標目으로 取하는 原理와 團體名記入의 理論의 紹介는 改革을 뜻하지 않고 이 目錄規則의 基本的인 原則을 잃이하는 것이다. Roloff는 많은 나라가 機械的인 書名採擇과 團體著作權을 받아 드리는 동안에 거의 문제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不幸히도 많은 問題가 있는것은 뚜렷한 事實이다. 그러나 團體名 記入의 理論을 얘기한 우리들은 이 記入法이 반드시 단순화 되어야 한다는 점에 同意한 것은 事實이다. 만약 이것이 성취된 된다면 문제들은 별로 생겨 나지 않을 것이며 지금의 獨逸傳統을 고집하는 이들에게 納得을 줄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요즘 독일의 思

潮는 우리에게도 그렇고 또 London의 論議에서도 문제 되어있듯이, 이 두 개의 目錄 傳統을 조화시키려는 것은 어찌든 非實際的이 아니며 오히려 거기에 는 合意에 到達하기爲한 實際的인 基礎가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958年 目錄法 改正運動이 Stanford 학회(The Stanford Institute on Cataloging Code Revision)에서 계속 되었다. 여기에 IFLA Working Group에서는 Mr. Chaplin과 Dr. Sickmann이 참석하여 이러한 문제를 토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Mr. Csborn은 目錄法改正에 對한 國際的 觀察에 對해 쓴 기사를 제출했다. 그는 目錄專門家들中 이노누구든지 國際的 合意를 기다린 것 없이 그대로 目錄法을 完成하고자 주장하는 일이 있더라도 國際的 會議를 避해 얻은 國際的 統一이 없는限, 새로 마련되는 Anglo-America의 目錄法에는 어떠한 단정적인 實行이 있어서는 안 될것을 再次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大體的인 찬성을 보아, 이런 문제들에 기초를 두고 英國目錄規則分科委員會(The English Subcommittee on Cataloging Rules)와 또 美國目錄規則改正委員會(American Cataloging Code Revision Committee)가 일출하는 중이다. 여기서 한가지 말할것은 이 두協會가 다 目錄規則改正에 對해 일하고 있는 만큼 서로 合意를 보게 되면 이것은 매우 큰 힘이 될것이라는 것이다.

### “出版前分類”의 經驗

“出版前分類”(Cataloging in source)라고 알려진 이 實驗은 1958年과 1959年의

數個月間에 美國議會圖書館(Library of Congress)이 實行했다. 이것이 實驗에서 實際適用으로 發展할 可能性과 또한 여기에 關心이 있다면 이 實驗은 國際分類一致에 큰 자극을 제공 할것이다. 千餘卷의 美國 冊들이 그 冊에 관한 目錄事項을 같이 인쇄하기 위해 出版 前에 分類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같은 題를 分類하느라고 많은 도서관에서 중복되는 에를쓰는 費를 없애려는 것이다. 이 實驗은 成功의 이라고 생각 된다. 그러나 이 계획이 藏書의 半以上이 外國것이 차지하고 있는 큰 연구 도서관에 利益을 줄수 있다면, 이 계획은 美國에서 보다 其他 各 外國에서 出版되는 冊들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할것이다. 이같이 광범위하게 전개된 이 계획에서 얻는 利益은 굉장한 것이며 同時에 도서관 目錄은 지금보다 더 표준이 될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叢誌學的인 情報를 各國이 서로 교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目錄記入의 原理에서 國際적으로 一致된 큰 성과를 필요로 하고 있을 것이다.

IFLA Working Group은 그들의 노력을 London에서 열린 예비회의에서 제

을 세웠던것 같이, 國際會議를 위한 계획을 적극추진 하는데 총 집중하고 있다. 이 회의는 1961年9월에 Paris에서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 多大한 成果가 견우어지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모두 國際的 一致를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또 짧은 동안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도 우리는 10年의 긴 세월을 계속해 왔으며 또 필요한 기관은 모두 마련 되었다. 어느때이고 이 目的은 달성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 일에 對한 關心과 熱이 어느때 보다도 크고 이 일에 마음을 쓰고 있는 지금 이 時代가 이 커다란 事業을 성취시킬수 있는 가장 좋은 시대일 것이다. (註譯者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圖書館學科生)

(Susan M. Huskins; "Moving toward international cataloging agreement". ALA Bulletin p. 194—p. 196을 번역한것임) 註: 筆者 Miss Huskins는 Harvard 대학 도서관의 분류係의 司書이다. 그는 지금 Catalog Code Revision Committee와 外國의 도서관협회간에 서로 연관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있다)

## 原 稿 募 集

本誌에 掲載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募集하오니 玉稿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圖書館事業에 關係되는 論文
2. 뉴스 資料
3. 其他